

유·초 연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최일선¹⁾ 조운주²⁾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초 연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공·사립 유치원 교사 및 부모와 초등학교 교사 및 부모 6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Chi-Square 검증, Fisher의 Exact 검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의 필요성 및 연계정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과 유·초 연계의 중요한 내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입학준비에서 가장 힘든 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연계교육 실시, 입학지원 담당기관, 초등학교의 입학지원 내용 및 유아교육기관의 입학지원 내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연계, 입학준비, 입학지원, 인식

I. 서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가 유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이를 위한 준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져 왔다(McIntyre, Eckert, Fiese, DiGennaro, & Wildenger, 2007; OECD, 2012). 이로 인해 Starting Strong(OECD, 2001)에서도 교육에서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간의 동등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제시한바 있다.

1)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2)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에 OECD에서는 2014-2015 정책 아젠다 중의 하나로 유·초 연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장명립·현주·박균열·이정욱·하민경, 2014). 이에 교육선진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유치원을 학제에 포함시키고,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를 포함한 상급학교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다(신옥순, 1994). OECD 국가들 중에서 영어권 국가와 프랑스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통일된 학교 준비식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OECD, 2006).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고시된 5세 누리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들을 위한 보편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기대효과를 제공한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이지현·전홍주·박은혜, 2012, 재인용)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와 더불어 2015년 개정 초등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의 내용에서 유치원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연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유치원의 5세 누리과정의 해당 영역이 연계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있다(이미숙, 2015).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이지만 이와 같은 노력만으로는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연계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이 불필요한 중복이나 단절 없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적합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곽노의·김창복·이경순, 2012). 유아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김지영·이성희, 2011).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더라도 이후 초등학교에서의 교육과 연속성이 없다면 교육성도가 더 이상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결과(이현진, 2005; Brostrom, 2002; Dockett, & Perry, 1999)에 의하면 입학초기 초등학교의 적응 정도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뿐 아니라 이후 인지, 정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어 상급학교에서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뿐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 발달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의 교육기관에서부터 지속적인 연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Rimm-Kaufman, & Pianta, 2001).

교사와 학부모들 또한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 적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Brostrom, 2002).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연계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상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취학준비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김지영·이성희, 2011). 즉, 효과적인 유·초 연계교육을 위해서는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수준 및 연계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수준은 교실현장에서 실제로 유·초 연계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김지영·이성희, 2011).

한편, 교육의 파트너인 학부모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철학,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이경민, 2008), 이를 바탕으로 입학준비를 할 때, 보다 효과적인 유·초 연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유·초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문영옥, 2003; 지성애, 2010), 실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초 연계와 관련된 정보나 내용은 학부모들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공신력있는 기관이 아닌 유치원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간에 얻은 정보를 토대로 나름대로 유·초 연계교육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황윤세·최미숙, 2006). 그러나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수집한 유·초 연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는 상당부분 검증되지 않거나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인 초등학교 입학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정효·박효정, 2005; 이윤미, 2007; La Paro, Pianta, & Cox, 2000; Lappalainen, 2008)에 의하면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과정에서 사회, 신체, 정서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상당한 긴장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들이 형식적인 학교기관에 입학하게 되면서 직면하는 급격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Brostrom, 2002).

이처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적절한 전이에 대한 강조로 바람직한 연계교육의 방향 및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실행되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상호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한 연구(김은영·조운주·김진숙·이세원, 2009; 박찬옥·이경하, 2006; 이승미, 2010; 이지현·전홍주·박은혜, 2012; 장명림·장혜진·이환기·이승미·송신영·최미미, 2012; 장혜진, 2013; 최일선, 2014)들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김창복, 2007; 조운주·김은영,

2009; 지성애, 2010), 유·초 연계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김창복, 2004; 장명림 외, 2014) 등이 수행되었다. 이외에 초등학교 전이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김민진, 2008; 염지숙, 1999; 이윤미, 2007)들이 일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취학 전의 교사와 부모들이 유치원과 상이한 교육과정, 교실환경, 수업방식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학 후에도 이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주로 새로운 환경 적응, 학습능력 및 학업성취,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에 관심과 걱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명림·김홍원·지성애·염지숙·정정희, 2015; 지성애, 2010; 허혜경, 2014). 특히 초등학교가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하는 시기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수행측면에서의 적응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취학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함을 취학준비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복·이신영, 2013, 한지혜, 2004; 허혜경, 2014). 이들 연구들은 주로 취학준비와 관련된 걱정이나 어려움을 다룬 것으로 실제로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최근 장명림과 그의 동료들(2015)이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행된 바 있는 데 이 연구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입학 전에 준비하는 것은 기초학습과 관련된 선행학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지원 요구로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지원이 높았으며, 초등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점은 개별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학교 적응에 대한 정보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부모들의 입학준비 실태와 더불어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학부모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교사들이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유·초 연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유·초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취학준비 및 지원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유아들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취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취학준비와 관련된 인식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Timperley, McNaughton, Howie와 Robinson(2003, 장명림 외, 2014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는 서로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대방 교사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이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초등학교 취학준비 및 지원을 위해서는 유·초 연계의 주체인 부모 및 교사가 초등학교

준비의 개념을 공유하고, 어떤 종류의 아동의 지식, 기술, 행동이 학교에서의 1년 동안의 성공의 전제조건인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Brostrom, 2002). 결과적으로 유아의 초등학교 준비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부모 모두의 인식을 살펴보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유·초 연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초 연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입학준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교 입학지원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치원교사 139명과 초등학교 1학년 교사 163명, 만 5세 유치원부모 170명과 초등학교 1학년 부모 129명 등 총 601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인 교사 및 부모의 구체적인 개인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사 및 부모의 개인배경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n=139)	초등교사(n=163)
근무기관	공립	75(54.0)	162(99.4)
	사립	64(46.0)	1(0.6)
연령	만 30세 미만	65(46.8)	31(19.0)
	만 31세-39세	42(30.2)	42(25.8)
	만 40세 이상	32(23.0)	90(55.2)
학력	2~3년제 대학졸업	44(31.7)	-
	4년제 대학졸업	69(49.6)	122(74.8)
	대학원졸업	26(18.7)	38(23.3)
	기타	-	3(1.8)

(표 1 계속)

구분		유치원교사(n=139)	초등교사(n=163)
경력	만 5년 미만	64(46.0)	36(22.1)
	만 5년~10년 미만	36(25.9)	14(8.6)
	만10년~15년 미만	22(15.8)	26(16.0)
	만15년~20년 미만	7(5.0)	26(16.0)
	만 20년 이상	10(7.2)	61(37.4)
구분		유치원부모(n=170)	초등부모(n=129)
응답자	아버지	18(10.6)	9(7.0)
	어머니	152(89.4)	120(93.0)
부모연령	30세 미만	2(1.2)	1(0.8)
	31-39세	106(62.4)	81(62.8)
	40세 이상	62(36.5)	47(36.4)
부모학력	고졸	31(18.2)	30(23.3)
	대졸	128(75.3)	93(72.1)
	대 학원졸	11(6.5)	6(4.7)
유아성별	남아	85(50.0)	60(46.5)
	여아	85(50.0)	69(53.5)
유아 형제순위	첫째	98(57.6)	69(53.5)
	둘째	55(32.4)	54(41.9)
	셋째이상	17(10.0)	6(4.7)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유·초 연계에 대한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김창복, 2007; 장명림 외, 2014; 장명림 외, 2015; 지성애, 2010; 허승희, 2013)에 기초하여 연구자간 협의를 거쳐서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유아교육전문가 2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아서 수정하였다. 최종 구성된 설문지의 문항내용 및 문항수, 문항 유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 수				문항 유형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유치원 부모	초등 부모	
	연령, 학력	2	2	2	2	
개인배경	응답자, 취업유무, 자녀성별, 자녀 유아교육기관, 자녀 형제순위	-	-	5	5	선다형 체크리스트
	근무기관, 근무기관의 학급수, 경력, 경험 유무	4	4	-	-	
	전공	1	-	-	-	

(표 2 계속)

구분	문항내용	문항 수				문항 유형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유치원 부모	초등 부모	
유·초 연계이해	유·초 연계 필요성, 유·초 연계 정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차이점, 유·초 연계 내용	4	4	4	4	선다형
입학준비	입학준비 내용 입학정보 얻는 곳, 입학걱정 정도, 입학걱정 내용, 입학준비로 가장 힘든 점	-	-	8	8	체크리스트
입학지원	연계교육 실시 및 참여, 입학지원 담당기관, 초등학교 지원내용, 유치원 지원내용	4	4	4	4	선다형 체크리스트
총 문항 수		15	14	27	27	

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선행연구 및 유아교육전문가의 내용타당성 검토를 통해 제작된 설문지는 문항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교사 3명과 학부모 2인에게 2015년 9월 10일~24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결과 문항내용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중순부터 2016년 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경기 및 인천 지역의 공·사립 유치원 만 5세 교사 및 학부모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 및 학부모들을 임의표집으로 선정한 다음, 우편 또는 메일을 활용하여 6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612부이었으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601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PC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및 백분율) 분석 및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고, 기대빈도수 5이하인 셀이 전체 20% 이상인 경우에는 Chi-Square 검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Fisher의 Exact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Chi-Square 검증 결과가 유의한 경우,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 Chi-Square를 각 6회 실시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경우의 유의도 수준은 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해서 .008(.05/6개 집단)로 하였다. 분석에서 일부 문항을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는 분석에 포함하여 문항별 사례 수는 차이가 있었다.

III. 연구결과

1. 유·초 연계에 대한 이해

유·초 연계 필요성 및 연계정도, 차이점, 가장 중요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유치원부모, 초등부모에게 설문조사하였다. 유·초 연계의 필요성 및 연계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유·초 연계 필요성 및 연계 정도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a)	초등교사 (b)	유치원부모 (c)	초등부모 (d)	전체	χ^2	사후검증 p value ($p < .008$)
연계 필요성	매우	81(58.3)	69(42.3)	87(51.2)	35(27.1)	272(45.3)	36.36*** df=12	a-b .049 a-c .524 a-d .000 b-c .200 b-d .077 c-d .000
	대체로	47(33.8)	70(42.9)	70(41.2)	69(53.5)	256(42.6)		
	보통	7(5.0)	12(7.4)	8(4.7)	15(11.6)	42(7.0)		
	약간	3(2.2)	11(6.7)	5(2.9)	8(6.2)	27(4.5)		
	전혀	1(0.7)	1(0.6)	0(0.0)	2(1.6)	4(0.7)		
	계	139(100.0)	163(100.0)	170(100.0)	129(100.0)	601(100.0)		
연계 정도	매우	5(3.6)	13(8.0)	14(8.2)	5(3.9)	37(6.2)	41.04*** df=12	a-b .001 a-c .000 a-d .039 b-c .072 b-d .489 c-d .067
	대체로	32(23.0)	58(35.8)	74(43.5)	44(34.1)	208(34.7)		
	보통	58(41.7)	55(34.0)	58(34.1)	52(40.3)	223(37.2)		
	약간	27(19.4)	33(20.4)	17(10.0)	24(18.6)	101(16.8)		
	전혀	17(12.2)	3(1.9)	7(4.1)	4(3.1)	31(5.2)		
	계	139(100.0)	162(100.0)	170(100.0)	129(100.0)	600(100.0)		

*** $p < .001$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유·초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36.36, p < .001$).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초등부모($p = .000$),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p = .000$)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교사(58.3%)와 유치원부모(51.2%)는 유·초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교사는 연계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과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초등부모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53.5%),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1%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유·초 연계 정도에 대한 인식은 대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41.04, p < .001$).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p = .001$), 유치원교사와 유치원부

모($p = .000$)간에 유의미한 차이($p < .008$)가 있었다. 유치원교사(41.7%)와 초등부모(40.3%)의 경우, 연계 정도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유치원부모는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 경우(43.5%)가 가장 많았고, 초등교사의 경우도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경우(35.8%)가 가장 많았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a)	초등교사 (b)	유치원부모 (c)	초등부모 (d)	전체	χ^2	사후검증 p value ($p < .008$)
교육제도	57(42.5)	42(25.9)	31(18.9)	23(18.0)	153(26.0)	37.80*** df=9	a-b .011
교육과정	50(37.3)	87(53.7)	85(51.80)	65(50.8)	287(48.8)		a-c .000
교육환경	25(18.7)	31(19.1)	39(23.80)	30(23.4)	125(21.3)		a-d .000
교사	2(1.5)	2(1.2)	9(5.5)	10(7.8)	23(3.9)		b-c .071
계	134(100.0)	162(100.0)	164(100.0)	128(100.0)	588(100.0)		b-d .017
							c-d .885

*** $p < .001$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조사 대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37.80, p < .001$).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유치원부모($p = .000$), 유치원교사와 초등부모($p = .000$)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교육제도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2.5%), 초등교사(53.7%), 유치원부모(51.80%), 초등부모(50.8%)는 교육과정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

유·초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초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a)	초등교사 (b)	유치원부모 (c)	초등부모 (d)	전체	χ^2	사후검증 p value ($p < .008$)
교육제도	39(29.1)	30(18.9)	21(12.4)	20(15.7)	110(18.6)	18.83* df=9	a-b .182
교육과정	61(45.5)	89(56.0)	91(53.5)	75(59.1)	316(53.6)		a-c .003
교육환경	29(21.6)	35(22.0)	51(30.0)	26(20.5)	141(23.9)		a-d .054
교사	5(3.7)	5(3.1)	7(4.1)	6(4.7)	23(3.9)		b-c .207
계	134(100.0)	159(100.0)	170(100.0)	127(100.0)	590(100.0)		b-d .790
							c-d .307

* $p < .05$

<표 5>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인식은 대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8.83, p < .05$).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유치원부모($p = .003$)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각 대상들 모두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교육과정’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초등부모의 경우 59.1%, 초등교사 56.0%, 유치원부모 53.5%, 유치원교사 45.5%로 나타나서 차이가 있었다. ‘교육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치원교사(29.1%)가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많았다.

2. 초등학교 입학준비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하여 중요한 입학준비 내용, 정보를 얻는 곳, 걱정 정도, 걱정 내용, 가장 힘든 입학준비에 대하여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에게 설문조사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준비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초등학교 입학준비 내용

단위: 명(%)

구분	유치원부모 (n=170)	초등부모 (n=129)	전체 (n=299)	χ^2 (df=1)	
건강관리	예	74(43.5)	46(35.7)	120(40.1)	1.89
	아니오	96(56.5)	83(64.3)	179(64.4)	
친구관계 및 단체생활 적응	예	85(50.0)	58(45.0)	143(47.8)	0.75
	아니오	85(50.0)	71(55.0)	156(52.2)	
규칙적인 생활습관	예	102(60.0)	87(67.4)	189(63.2)	1.75
	아니오	68(40.0)	42(32.6)	110(36.8)	
예체능 수행평가	예	52(30.6)	36(27.9)	88(29.4)	.25
	아니오	118(69.4)	93(72.1)	211(70.6)	
표현능력 키우기	예	47(27.6)	49(38.0)	96(32.1)	3.60
	아니오	123(72.4)	80(62.0)	203(67.9)	
학습관련 체험활동	예	35(20.6)	27(20.9)	62(20.7)	.01
	아니오	135(79.4)	102(79.1)	237(79.3)	
기초학습(읽기· 쓰기·셈하기)	예	115(67.6)	86(66.7)	201(67.2)	.03
	아니오	55(32.4)	43(33.3)	98(32.8)	
스스로 학습하는 연습	예	111(65.3)	96(74.4)	207(69.2)	2.87
	아니오	59(34.7)	33(25.6)	92(30.8)	

<표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입학준비 내용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연습(69.2%)’로 가장 많았고, ‘기초학습(67.2%)’, ‘규칙적인 생활습관(63.2%)’, ‘친구관계 및

단체 생활적응(47.8%), '건강관리(40.1%)', '표현능력 키우기(32.1%)', '예체능 수행평가(29.4%)', '학습관련 체험활동(20.7%)'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준비 내용별로 유치원 부모와 초등부모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취학준비를 위한 '건강관리'는 유치원부모(43.5%)가 초등부모(3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및 단체생활 적응' 준비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부모(50.04%)가 초등부모(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준비에 대한 인식은 초등부모(67.4%)가 유치원부모(60.0%)보다 높았다. '예체능 수행평가' 준비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부모(30.6%)가 초등부모(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현능력 키우기' 준비에 대한 경우, 초등부모(38.0%)가 유치원부모(27.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습관련 체험활동' 준비에 대한 인식은 초등부모(20.9%)가 유치원부모(20.6%)보다 약간 높았다. '기초학습(읽기·쓰기·셈하기)' 준비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부모(67.6%)가 초등부모(66.7%)보다 높았다. '스스로 하는 학습' 준비에 대한 인식은 초등부모(74.4%)가 유치원부모(6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초등학교 입학정보를 얻는 곳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부모가 입학정보를 얻는 곳

단위: 명(%)

구분	유치원부모	초등부모	전체	<i>Fisher's Exact</i>
초등학교	3(2.0)	5(3.9)	8(2.9)	8.07 df=5
유아교육기관	6(4.0)	6(4.7)	12(4.3)	
주변 지인	81(54.4)	80(62.0)	161(57.9)	
스스로 정보 찾기	42(28.2)	20(15.5)	62(22.3)	
교육관련기관(교육청, 지역센터)	1(0.7)	0(0.0)	1(0.4)	
기타	16(10.7)	18(14.0)	34(12.2)	
계	149(100.0)	129(100.0)	278(100.0)	

<표 7>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정보를 얻는 곳이 '주변 지인'(57.9%)이 가장 많았고, '스스로 정보 찾기'(22.3%), '기타'(12.2%), '유아교육기관'(4.3%), '초등학교'(2.9%), '교육관련 기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정보를 얻는 곳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변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는 인식은 초등부모(62.0%)가 유치원부모(54.4%)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정보 찾기'는 유치원부모(28.2%)가 초등부모(15.5%)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걱정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걱정 정도

구분	유치원부모	초등부모	전체	단위: 명(%)	
				χ^2	df
매우	19(11.2)	21(16.3)	40(13.4)	4.95	df=4
대체로	52(30.6)	44(34.1)	96(32.0)		
보통	47(27.6)	34(26.4)	81(27.1)		
약간	43(25.3)	28(21.7)	71(23.7)		
전혀	9(5.3)	2(1.6)	11(3.7)		
계	170(100.0)	129(100.0)	299(100.0)		

〈표 8〉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걱정 정도는 대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유치원부모들 중 대체로 또는 매우 걱정된 부모는 41.8%이었고, 초등부모는 50.4%로 초등부모가 유치원부모보다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걱정 내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초등학교 입학 전 부모의 걱정 내용

구분	유치원부모	초등부모	전체	단위: 명(%)	
				χ^2	df
기초학습능력	33(19.6)	19(14.8)	52(17.6)	3.16	df=4
학교생활적응	42(25.0)	36(28.1)	78(26.4)		
기본생활습관형성	18(10.7)	16(12.5)	34(11.5)		
물리적 환경변화	13(7.7)	8(6.3)	21(7.1)		
친구와의 관계형성	49(29.2)	43(33.6)	92(31.1)		
교사와의 관계형성	13(7.7)	6(4.7)	19(6.4)		
계	168(100.0)	128(100.0)	296(100.0)		

〈표 9〉에 의하면, 입학 전 부모가 걱정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친구와의 관계형성’(31.1%)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였고, ‘학교생활적응’(26.4%), ‘기초학습능력’(17.6%), ‘기본생활습관형성’(11.5%), ‘물리적 환경변화’(7.1%), ‘교사와의 관계형성’(6.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친구와의 관계형성’은 초등부모(33.6%)가 유치원부모(29.2%)보다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도 초등부모(28.1%)가 유치원부모(25.0%)보다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습관형성’도 초등부모(12.5%)가 유치원부모(10.7%)보다 더 걱정하였다. 이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은 유치원부모(19.6%)가 초등부모(14.8%)보다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준비에서 부모가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초등학교 입학준비에서 부모의 가장 힘든 점

단위: 명(%)

구분	유치원부모	초등부모	전체	χ^2
입학정보부족	39(26.5)	51(46.4)	90(35.0)	15.85** df=4
유아교육기관의 준비부족	3(2.0)	4(3.6)	7(2.7)	
초등학교의 안내부족	77(52.4)	32(29.1)	109(42.4)	
가정 여건	9(6.1)	8(7.3)	17(6.6)	
자녀 발달수준 모름	19(12.9)	15(13.6)	34(13.2)	
계	147(100.0)	110(100.0)	257(100.0)	

** $p < .01$

<표 10>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준비에서 부모가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의 안내부족’이 42.4%로 가장 많았고, ‘입학정보부족’(35.0%), ‘자녀 발달 수준 모름’(13.2%), ‘가정 여건’(6.6%), ‘유아교육기관의 준비부족’(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 = 15.85, p < .01$). 유치원부모의 과반수이상(52.4%)이 ‘초등학교의 안내 부족’으로 입학준비가 가장 힘들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초등부모(46.4%)는 ‘입학정보부족’으로 부모의 입학준비가 힘들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3. 초등학교 입학지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과 관련하여 연계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 초등학교 입학지원 담당기관, 초등학교의 입학지원 내용, 유아교육기관의 입학지원 내용에 대해서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유치원부모, 초등부모에게 설문조사하였다.

교사에게 초등학교 입학지원을 위한 연계교육 실시여부, 부모에게 초등학교 입학지원을 위한 연계교육 참여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초등학교 입학지원을 위한 연계교육 실시 및 참여여부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전체	χ^2
연계교육 실시함	70(50.7)	32(19.6)	102(33.9)	32.25*** df=1
연계교육 실시 안함	68(49.3)	131(80.4)	199(66.1)	
계	138(100.0)	163(100.0)	301(100.0)	

(표 11 계속)

구분	유치원부모	초등부모	전체	χ^2
연계교육 참여함	11(6.5)	9(7.0)	20(6.7)	.03 df=1
연계교육 참여 안함	158(93.5)	120(93.0)	278(93.3)	
계	169(100.0)	129(100.0)	298(100.0)	

*** $p < .001$

<표 11>에 의하면, 연계교육의 실시 여부는 유치원교사 중 과반수이상(50.7%)이 실시하여 초등교사(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 = 32.25, p < .001$). 연계교육에 참여한 유치원부모는 6.5%, 초등부모는 7.0%로 소수에 불과하였고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초등학교 입학지원 담당기관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a)	초등교사 (b)	유치원부모 (c)	초등부모 (d)	전체	χ^2	사후검증 p value ($p < .008$)
유아교육기관 지원	23(16.9)	63(38.9)	49(29.2)	49(38.3)	184(31.0)	24.83***	a-b .000 a-c .030 a-d .000
초등학교 지원	89(65.4)	71(43.8)	99(58.9)	63(49.2)	322(54.2)		
지역교육청 지원	24(17.6)	28(17.3)	20(11.9)	16(12.5)	88(14.8)	df=6	b-c .022 b-d .464 c-d .213
계	136(100.0)	162(100.0)	168(100.0)	128(100.0)	594(100.0)		

*** $p < .001$

<표 12>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 담당기관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54.2%), 그 다음 유아교육기관, 지역교육청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지원 기관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24.83, p < .001$).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p = .000$), 유치원교사와 초등부모($p = .000$)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초등학교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65.4%).

기관별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초등학교의 입학지원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초등학교의 입학지원 내용

단위: 명(%)

구분	유치원 교사 (a)	초등 교사 (b)	유치원 부모 (c)	초등 부모 (d)	전체	χ^2	사후검증 p value ($p < .008$)
입학정보제공	36(25.9)	46(29.3)	32(19.3)	20(15.9)	134(22.8)	92.96*** df=15	a-b .004 a-c .041 a-d .001 b-c .000 b-d .000 c-d .285
기초학습지도	12(8.6)	11(7.0)	19(11.4)	21(16.7)	63(10.7)		
학교생활적응지도	30(21.6)	54(34.4)	23(13.9)	20(15.9)	127(21.6)		
기본생활습관지도	17(12.2)	26(16.6)	12(7.2)	4(3.2)	59(10.0)		
연계된 환경구성	7(5.0)	5(3.2)	8(4.8)	4(3.2)	24(4.1)		
교사태도 개선 및 소통기회 확대	22(15.8)	7(4.5)	48(28.9)	30(23.8)	107(18.2)		
계	139(100.0)	157(100.0)	166(100.0)	126(100.0)	588(100.0)		

*** $p < .001$

〈표 13〉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입학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학생생활적응지도’(21.6%), ‘교사태도 개선 및 소통기회 확대’(18.2%), ‘기초학습지도’(10.7%), ‘기본생활습관지도’(10.0%), ‘연계된 환경구성(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의 입학지원내용에 대한 인식은 대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92.96, p < .001$).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p = .004$), 유치원교사와 초등부모($p = .001$), 초등교사와 유치원부모($p = .000$), 초등교사와 초등부모($p = .000$)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입학정보제공’(25.9%)이 초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초등교사는 ‘학교생활적응지도’(34.4%)를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유치원부모(28.9%)와 초등부모(23.8%) 모두 ‘교사태도 개선 및 소통기회 확대’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유아교육기관의 입학지원 내용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사 (a)	초등교사 (b)	유치원부모 (c)	초등부모 (d)	전체	χ^2	사후검증 p value ($p < .008$)
입학정보제공	18(13.1)	9(5.7)	35(21.2)	24(18.8)	86(14.6)	98.98*** df=12	a-b .050 a-c .000 a-d .000 b-c .000 b-d .000 c-d .301
기초학습지도	12(8.8)	8(5.1)	22(13.3)	29(22.7)	71(12.1)		
학교생활적응지도	22(16.1)	23(14.6)	22(13.3)	13(10.2)	80(13.6)		
기본생활습관지도	60(43.8)	93(58.9)	34(20.6)	22(17.2)	209(35.5)		
대인관계능력지도	25(18.2)	25(15.8)	52(31.5)	40(31.3)	142(24.1)		
계	137(100.0)	158(100.0)	165(100.0)	128(100.0)	588(100.0)		

*** $p < .001$

<표 1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원을 ‘기본생활습관지도’(35.5%)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능력지도’(24.1%), ‘입학정보제공’(14.6%), ‘학교생활적응지도’(13.6%), ‘기초학습지도’(12.1%)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대상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98.98$, $p < .001$). 사후검증 결과, 유치원교사와 유치원부모($p = .000$), 유치원교사와 초등부모($p = .000$), 초등교사와 유치원부모($p = .000$), 초등교사와 초등부모($p = .000$)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교사(43.8%)와 초등교사(58.9%)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본생활습관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치원부모(31.5%)와 초등부모(31.3%)는 ‘대인관계능력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는 유·초 연계의 일환으로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결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이해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구대상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교사 및 부모 대부분이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연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중 40%정도가 대체로 연계된다고 생각하여 유·초 연계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대상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교사가 유치원부모나, 초등교사, 초등부모보다 연계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교사 및 초등부모, 유치원부모들은 과반수 이상이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반면, 유치원교사는 교육제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계내용에서도 대상 간에 인식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연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장명림 외(2014), 지성애(2010) 및 최경주(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차이와 연계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들(김지영·이성희, 2011; 김창복, 2007; 지성애, 2010)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결과로 부모, 교사들 대부분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에서 교육과정 연계를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공동으로 함께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연구와 달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차이에서 유치원교사는 교육제도라고 한 결과는 유치원이 공교육기관이 아닌 상황에서는 체계적인 유·초 연계가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임으로 연계교육차원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입학준비에서 중요한 내용을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에게 조사한 결과, ‘스스로 학습하는 연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초학습’, ‘규칙적인 생활습관’, ‘친구관계 및 단체 생활적응’, ‘건강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부모는 ‘기초학습’ 준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높은 반면, 초등부모는 ‘스스로 학습하는 연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별 응답내용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부모는 ‘건강관리’, ‘친구관계 및 단체 생활적응’, ‘예체능 수행평가’, ‘기초학습’ 내용에서 초등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부모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표현능력 키우기’, ‘학습관련 체험활동’, ‘스스로 학습하는 연습’이 유치원부모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취학정보를 얻는 곳의 경우 부모들은 ‘주변 지인’을 통해 취학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스로 정보 찾기’, ‘유아교육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명립과 동료들(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취학정보를 주변지인이나 스스로 찾아본다는 것은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 개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취학정보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취학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초연계 가이드라인 및 안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부모의 걱정 정도에 대해서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 모두 매우 또는 대체로 걱정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입학 전 부모가 걱정하는 내용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형성’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준비에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 유치원부모는 ‘초등학교의 안내 부족’이 가장 많은 반면, 초등부모는 ‘입학정보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교 입학준비와 관련하여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의 입학준비, 입학정보를 얻는 곳, 부모의 걱정 정도, 부모의 걱정내용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들의 입학 전 걱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입학준비 지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입학을 실행해 본 경험의 차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Brostrom(2002)은 부모와 교사들이 초등학교 준비 개념을 공유하고, 어떤 종류의 지식, 기술, 행동이 아동의 초등학교 1년 생활동안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

는 지에 대한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유아의 성공적인 전이는 초등학교와 가정이 연계되고,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실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연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함(Bogard, & Takanishi, 2015)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입학준비에 대한 교사와 부모 간의 합의를 마련해야 하고, 합의에 기초하여 입학준비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유치원부모는 입학준비에서 가장 힘든 점을 ‘초등학교 안내부족’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연계교육에서 초등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간의 정확한 상호정보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함(Margetts, 2002)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으로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 간에 유·초 연계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과 관련된 연계교육 실시 및 참여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계교육 실시는 유치원교사가 초등교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계교육의 참여는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 모두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에 지원하는 기관으로 초등학교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입학정보제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생활적응지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교육기관에서 지원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는 ‘기본생활습관지도’를 가장 많이 해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유치원부모와 초등부모는 ‘대인관계능력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연계교육 실시와 연계교육 참여가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가 학부모 대상 연계교육 및 입학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초등학교에서 입학준비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입학준비 지원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교사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지원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기본생활습관지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계교육 시 기본생활습관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김지영과 이성희(2011) 및 김정순(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기본생활습관지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부모들은 ‘대인관계능력지도’를 중요한 지원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이 반영되어 대인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Chan(2010)에 의하면 유치원교사, 초등교사와 학부모간의 강력한 연계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원만한 전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 초등교사와 학부모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유아, 부모 및 가족과 더불어 유치원,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에 대비하여 유치원 시기부터 유·초 연계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취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LoCasale-Crouch, Mashburn, Downer, & Pianta, 2008). 따라서 유아의 원만한 초등학교 전이에서 중요한 지원역할을 하는 교사 및 학부모간의 상호 교육과정, 교육실제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보하여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급간의 전이과정에서 교수-학습과정의 연속성의 저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아동의 학교 공포증, 문맹, 중퇴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법적인 의무교육의 출발점 상에서 기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Vrinioti, Einarsdottir, & Brostrom, 2010).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준비 및 지원의 미흡으로 인해 기회불평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전이교육협의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학군의 전이교육 기획, 조정 및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전이코디네이터가 전이를 위한 중재를 담당하게 하기도 한다(장명림 외, 2015).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유아기 생애 최초의 형식적인 기관의 학생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켜 가는 것으로 유아의 역할, 정체성, 기대수준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유아 주변사람들의 기대와 상호작용유형 및 관계형성의 변화가 일어난다(Dockett, & Perry, 2007, 장명림 외 2015 재인용). 이러한 다양한 변화과정에서 유아가 당면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학준비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교사 및 학부모가 인식하는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해 살펴봤는데, 실제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들 스스로가 학교생활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입학준비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 및 학부모가 입학준비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합의된 구체적인 입학준비 및 지원계획

과 내용을 반영한 입학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1).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1년 5월 2일)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곽노의·김창복·이경순(2012).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창지사.
- 김경순(2003).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진(2008).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입학초기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39(1), 181-210.
- 김은영·조운주·김진숙·이세원(2008).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정효·박효정(2005).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교과교육학연구*, 9(2), 233-259.
- 김지영·이성희(2011).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 *인문논총*, 28, 57-74.
- 김창복(2004).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교육의 연계방안 모색. *열린유아교육연구*, 9(4), 317-337.
- 김창복(2007).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유아교육학논집*, 11(1), 5-28.
- 김창복·이신영(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 미디어연구*, 12(3), 319-350.
- 문영옥(2003).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학부모의 교육관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찬옥·이경하(2006).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학교육과정의 연계성 논의. *유아교육학논집*, 10(3), 149-172.
- 신옥순(1994). **교육제도와 교육법**. 과학과 예술.
- 염지숙(1999). 유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본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의 전이. *한국영유아보육학*, 17, 405-427.

- 이경민(2008). 교육주체 측면에서 본 유·초 연계교육의 당위성과 지원방향.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208-223.
- 이미숙(2015). 2015 초등 통합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방향과 주요 변화사항. 한국유아지원학회 제 58차 하계 연구모임, 1-19.
- 이승미(2010).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26(2), 59-90.
- 이윤미(2007).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경험. **초등교육학연구**, 14(2), 99-117.
- 이지현·전홍주·박은혜(2012). 3, 4세 유치원교육과정, 5세 누리과정, 초등 1학년 교육과정 언어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6(4), 253-279.
- 이현진(2005). **초등학교 1학년 365일**. 예담.
- 장명림·김홍원·지성애·염지숙·정정희(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장혜진·이환기·이승미·송신영·최미미(2012).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3, 4세 연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현주·박균열·이정옥·하민경(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혜진(2013). 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성 분석. **육아정책포럼** 봄호, 42-52. 육아정책연구소.
- 조운주·김은영(2009).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의 차이와 연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이해 탐색.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4), 51-74.
- 지성애(2010). 학부모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 **유아교육연구**, 14(2), 217-248.
- 최경주(2008).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급간 연계성에 대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일선(2014).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분석-사회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논총**, 34(3), 295-318.
- 허승희(2013).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분석. **학습전략중재연구**, 4(2), 1-16.
- 허혜경(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실태. **유아교육연구**, 34(2), 435-453.
- 한지혜(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19-251.
- 황윤세·최미숙(2006). 유·초 연계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신념, 지식 및 실제 간의

차이. *아동학회지*, 27(4), 147-164.

- Bogard, K., & Takanishi, R.(2005). PK-3: An aligned and coordinated approach to education for children 3 to 8 years old. *Social Policy Report, 19*(3).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Brostrom, S.(2002). *Communication and continuity in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school*(pp. 52-63). In H. Fabian, & A. W. Dunlop(Eds.) *Transitions in the Early Years: Debating continuity and progression for children in early education*. London: RoutledgeFalmer Education.
- Chan, W. L.(2010). The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primary school, as experienced by teachers, parents and children in Hong Kong.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7), 973-993.
- Dockett, S., & Perry, B.(1999). Starting school: What do the children sa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59*(1), 107-119.
- Dockett, S., & Perry, B.(2007). *Transitions to School: Perceptions, expectations, experiences*. Sydney: University of NSW Press.
- La Paro, K. M., Pianta, R. C., & Cox, M.(2000). Teachers' reported transition practices for children transitioning into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Exceptional Children, 67*(1), 7-20.
- Lappalainen, S.(2008). School as "survival game": Representation of school in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primary school. *Ethnography and Education, 3*(2), 115-127.
- LoCasale-Crouch, J., Mashbum, A. J., Downer, J. T., & Pianta, R. C.(2008). Pre-kindergarten teachers' use of transition practices and children's adjustment to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1), 124-139.
- Margetts, K.(2002). Transition to school-complexity and diversity.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0*(2), 103-114.
- McIntyre, L. L., Eckert, T. L., Fiese, B. H., DiGennaro, F. D., & Wildenger, L. K. (2007). Transition to kindergarten: Family experiences and involvem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5*(1), 83 - 88.
- OECD(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OECD(2006). **OECD 영유아교육 보육정책 II(Starting Strong II)**.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개발센터 역(2008).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France: OECD.

- Rimm-Kaufman, S. E., & Pianta, R. C.(2001). An ecological perspectives on th transition to kindergart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guide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5), 491-511.
- Timperley, H., McMaughton, S., Howie, L., & Robinson, V.(2003). Transitioning children from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school: Teacher beliefs and transition practices.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8*(2), 33-38.
- Vrinioti, K., Einarsdottir, J., & Brostrom, S.(2010). *Transitions from preschool to primary school*(pp. 2-8). In H. Muller(Ed.) Early Years Transition Programm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Emphasizing early literacy. Cologne: Eu-Agency, Regional Government for Cologne/Germany.

·논문접수 8월 1일 / 수정본 접수 9월 5일 / 게재 승인 9월 26일

·교신저자: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wjcho@ut.ac.kr

Abstract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Preparations and Supports for Entering Primary School as a Part of Articul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Ilsun Choi and Woonju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basic informations for the articulation educ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by examining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preparations and supports for entering primary school. For this purpose, survey was conducted including 601 kindergarten teachers, primary school teachers, kindergarten parents and primary school parents located in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Fisher' Exact test and post-hoc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in the area of necessities of articulation, level of articulation, differences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primary education, and important contents for articulation. Seco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fficulties on entering primary school revealed. Fin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actice of articulation education between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admission service, support contents of primary school and kindergarten for entering primary school.

Key words: articulation, preparations for entering, supports for entering, perceptions